

한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좀비 서사’에 관한 고찰*

김소륜**

1. 21세기 사회와 ‘좀비 서사’의 르네상스
2. 무지(無知)와 무지(無智)의 존재: ‘알 수 없음’이 주는 공포
3. 인간과 좀비의 새로운 관계: 야금술사의 상상력
4. 한국현대소설과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국문초록

오늘날 대중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는 단연 ‘좀비 서사’를 들 수 있다. 어느새 ‘좀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드러내는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현대소설 안에서는 좀비물이 적극적으로 서사화된 경우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본 논문은 현대소설 내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의 존재를 주목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좀비 서사’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론에서는 좀비가 주는 공포를 ‘알 수 없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좀비라는 존재에 대한 ‘무지(無知)’가 주는 공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비가 지닌 ‘사유(思惟)’의 ‘부재(不在)’를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 개념과 연결하여 ‘무지(無智)’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에 그려진 좀비와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에 주목하

* 본 논문은 2021년 4월 24일, 대중서사학회에서 〈감염의 역사적 상상과 대중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였다. 이는 좀비로부터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연대를 넘어서서, 인간과 좀비 사이의 연대에 관한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포획하는 자와 포획당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조명으로, 이는 현대인의 도식화된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국내 현대 소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의 존재를 탐구함으로써, ‘좀비’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주로 영상물 위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좀비 서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좀비, 서사, 한나 아렌트, 무사유, 악의 평범성, 연대, 야금술, 이분법, 김종혁, 윤이형, 정세량)

1. 21세기 사회와 ‘좀비 서사’의 르네상스

데카르트(*cogito ergo sum*) 이후 20세기 사회를 지배한 키워드는 단연 ‘주체’였다. 인식과 행위의 주인이 되는 자율적 존재인 주체의 발견이야말로 20세기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체의 주체성이 타자를 향한 억압과 폭력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1세기 사회는 ‘타자의 타자성’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주체라는 인식 위에는 ‘타자의 타자’라는 사유가 자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타자의 타자성’을 통해 쪼개진 주체의 조각들을 조우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21년 현재, 그 쪼개진 거울 조각들 속에 비친 ‘좀비’의 존재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비롯한 대중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로는 단연 '좀비' 서사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로 좀비물은 더 이상 “저예산 B급 영화”가 아니라 “고예산 주류 영화”로 제작되기에 이르렀으며, 2006년에 이르러서는 “공식적으로 좀비”의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주장이 선언되기도 하였다.¹⁾ 그 결과 대중문화 속에 그려진 좀비들은 더 이상 두뇌 활동이 정지된 채 신체적으로 제약을 지닌 ‘살아있는 시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좀비들을 모아 조직을 구성하고, 인간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짜며, 인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등 지능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에서 다양한 진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무엇보다 좀비는 단순한 공포의 존재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비루한 현대인에 관한 은유로서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좀비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이 노예인지도 모르면서 일하는 속박된” 존재로, 혹은 “미국 사회의 폐쇄적인 인종차별주의” 혹은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억압된 욕망의 분출과 전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명적인 존재로까지 읽히고 있다.²⁾ ‘B급 대중문화’로 치부되었던 좀비 서사는 어느새 핵심적인 주류 문화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좀비’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는 노력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1) Kyle William Bishop, *American Zombie Gothic: The Rise and Fall (and Rise) of the Walking Dead in Popular Culture*, London: Mc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2010, 이동신, 「좀비 자유주의: 좀비를 통해 자유주의 되살리기」, 『미국학논집』 제46권 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14, 120쪽에서 재인용.

2) 서동수, 「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183쪽.

뜨는 것이 좀비를 부정적인 존재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내포하는 주체로 조명하는 연구들이다. 권혜경은 “서구 대중문화 속에서 좀비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회의 악과 부정을 드러내는 묵시록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과 전복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역설적 상징”이라고 주장하였고,³⁾ 이동신은 좀비가 잘못된 사회구조와 편견을 퍼뜨리는 부정적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구조와 편견을 비판하고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존재라고 주목하고 있다.⁴⁾ 또한 김성범은 “2000년대 이후 좀비는 오히려 신인류 즉 새로운 인간 종(種)을 상징”한다며, 가상계와 현실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잠재적 실재를 표현하는 존재자로서 좀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⁵⁾ 서동수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좀비를 “후기 자본주의의 영혼 없는 노예-소비자나 사물화 된 노동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환멸의 세계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도입시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⁶⁾

한편 국내에서는 좀비에 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함께, 영화 <부산행>(2016)과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019)의 흥행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의 특수성을 조명하려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아름은 현재 우리나라 20-30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재탄생한 좀비를 ‘한국형 좀비’라고 지칭하며, 좀비를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관심과 경험,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불안을 진단할 수

3) 권혜경, 『좀비, 서구 문화의 전복적 자기반영성』, 『문화과 영상』 제10권 3호, 문화과 영상학회, 2009, 557쪽.

4) 이동신, 『좀비 자유주의: 좀비를 통해 자유주의 되살리기』, 『미국학논집』 제46권 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14, 124쪽.

5) 김성범, 『21세기 왜 다시 좀비 영화인가?』, 『씨네포럼』 제18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4, 154쪽.

6) 서동수, 『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181쪽.

있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비슷한 맥락에서 박하림은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를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좀비 서사는 문제적 세계에 대한 파괴충동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고 내부적 파괴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멜랑콜리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⁸⁾ 한편 성신형은 현대 사회를 ‘좀비사회’로 진단하고, “한국 전쟁이후에 서구화에 성공하여 발전된 물질문명을 누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생각하는 좀비론”을 고찰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⁹⁾ 이처럼 좀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맞물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드러내는 독특한 캐릭터로서 꾸준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¹⁰⁾ 다시 말해 대중문화에 나타난 ‘좀비’는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보편성을, 국내에서 독특하게 변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 문단을 돌아보면 좀비가 서사의 축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의 출발점은 대중문화 속에서 폭발적으로 소비되는 ‘좀비 서사’가 왜 유독 현대소설 내에서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설이란 대로변을 돌아다니는 거울과 같다는 스탕달의 논의를 빌려 오지 않더라도, 소설은 오랜 시간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

7)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191쪽.
 8) 박하림, 『파국의 기원과 멜랑콜리,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좀비 서사 연구』, 『비교문학』 제71호, 한국비교문학회, 2017, 5쪽.
 9) 성신형, 『한국적 좀비사회 내러티브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문화연구』 제13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0, 34쪽.
 10) 최근 ‘좀비’를 핵심 제재로 삼고 있는 학위 논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좀비에 관한 사회문화적·문화적 접근이 점차 심화되어 나갈 것임을 암시한다.

을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 문단 내에서 좀비를 핵심 축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작품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한국현대문학사 안에서 오랜 시간 핵심적인 축을 담당해온 ‘사실주의적 창작 기법’의 영향력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문학사조는 ‘좀비’라는 상상적 타자를 서사화하는 작업에 관해 다른 장르만큼 적극적일 수 없었고 유추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현대소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을 발굴하고, 그 속에서 ‘좀비’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고 있는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¹¹⁾ 나아가 해당 작품에 관한 고찰은 21세기 사회에서 주목하는 타자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의의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2. 무지(無知)와 무지(無智)의 존재: ‘알 수 없음’이 주는 공포

대중문화 속에 그려진 ‘좀비’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와 인간 소외 문제를 함의해왔다. 그러나 대체로 문학 작품에서는 ‘좀비’라는 존재를 가시화하기보다, 해당 문제를 일종의 ‘재난’ 상황으로 형상화되어온

11)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분석 대상은 김종혁의 『좀비들』(창비, 2010), 듀나의 〈너네 아 빠 어딴니?〉(『용의 이』, 북스피어, 2007), 윤이형의 〈큰 늑대 파랑〉(『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정세라의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이다.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2000년대 소설에서는 대중문화 속의 '좀비물' 만 큼이나 많은 양의 재난 소설이 창작되었고, '재난 소설'이라는 하나의 경 향을 형성하고 있다.¹²⁾ 대중문화 내에서 '좀비'라는 괴물로 이미지화되 었던 재난의 문제는 문학 작품 속에서 주로 세기말적인 시공간과 인물 들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형상화되어온 것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는 괴물이 주는 시각적 효 과 대신, 주로 인물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분위기'가 강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한국현대소설 안에서도 '좀비'를 주된 서사의 축으로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 는 더 이상 좀비가 현대 사회가 마주한 재난을 형상화하기 위한 은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이형의 〈큰 늑대 파랑〉¹³⁾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좀비들로 인해 사람들이 공격을 당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창조한 네 명의 부모를 순차 적으로 찾아가는 늑대 '파랑'의 서사를 담고 있다. 이때 작가는 '서울에 좀비 현상 확산 … 원인은 이상 바이러스로 추정(종합)'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좀비 현상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언급하지 않 는다. 이는 정세랑의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¹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양궁 선수 정윤은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되어 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고립된다. "왜 누군가는 좀비가 되고 누군가 는 발병하지 않았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233쪽)라는 서술에서 확

12) 이를 두고 복도훈은 "최근 2~3년 동안 한국소설에서 재난의 상상력을 표방하는 각종 재난소설, 묵시록, SF 등은 유례없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제 재난소설이나 묵시록은 한국의 문학적 유세종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8쪽.

13)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4) 정세랑,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인할 수 있듯이, 좀비의 발생에 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진 인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로 작용한다.

이는 김중혁의 장편소설 『좀비들』¹⁵⁾에서도 발견되는 지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의 집에 침입한 좀비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지지 않는다. 주인공이 2층 방 안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좀비를 마주했을 때 느낀 공포는 인간이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이의 이층으로, 사다리도 없이 어떻게 침입했는가라는 의문에서 비롯된다. 좀비 자체가 주는 공포에 앞서, 어떻게 자신의 집에 침입했는지 ‘알 수 없음’이 주인공에게 무엇보다 큰 공포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의 중반 이후에 좀비들이 군대에서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음악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좀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이는 듀나의 〈너네 아빠는 어딴니?〉¹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듀나의 소설에 그려진 좀비는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타자가 아닌, 주인공인 새별과 새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출한 아내에 대한 증오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두 자매를 폭행하고, 급기야 엄마를 닮은 작은 딸을 겁탈하기에 이른다. 이에 동생을 구출하기 위해 새별은 아빠의 뒷목을 식칼로 찌르고 목을 그어버린다.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다행히도 이 경우는 죽은 쪽이 아빠”로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아빠의 시체는 매일 밤 땅을 파헤치고 올라와 두 자매를 찾아오고,

15) 김중혁, 『좀비들』, 창비, 2010.

16) 듀나, 〈너네 아빠 어딴니?〉, 『용의 이』, 북스피어, 2007. - 듀나는 SF 장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듀나의 작품은 문예지에서도 종종 발표되는데, 이는 장르문학 중에서는 이례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다. 듀나에 관한 내용은 기사 〈얼굴 없는 SF작가 ‘듀나’와 e메일 교신〉(『중앙일보』, 2006.1.16., 제27면)을 참고하였다.

죽기 직전에 하던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나 새별은 어느새 더 이상 좀비가 된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일 밤 죽기 전의 행위를 반복하려는 아빠의 행동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밤 열두 시 무렵 창고를 지키고 앉아 있다가 땅 속에서 아빠가 모습을 드러내면 또다시 목을 칼로 긁고 물어버리면 그만이다. 더욱이 아빠가 좀비가 된 이유가 창고에 있는 황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새별이는 더 이상 좀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좀비 발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 곧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알 수 없음'이 좀비의 등장이 갖는 근원적인 공포라고 본다면, 예측할 수 없는 좀비의 행위 역시 '무지(無知)'가 주는 공포로 이어진다.

눈이 빨간 소년이 노파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땅바닥에 내다뺏았다. 둘이 한 덩어리가 되어 구르는 불과 몇 십초 동안 소년의 머리는 노파의 얼굴과 옆구리, 어깨와 정강이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노파가 벽을 향해 돌맹이처럼 굴러왔다. 노파의 목에 고개를 박고 힘차게 턱뼈를 움직이던 소년이 공중으로 고개를 확 쳐들었다. 우박만한 핏덩어리가 메마른 벽에 맞고 으깨져 흘러내렸다. 눈이 빨간 소년의 턱 밑으로 굵고 검붉은 핏줄 하나가 늘어져 흔들렸다.¹⁷⁾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소년 좀비는 “허름한 치마저고리 위에 누비조끼를 걸쳐 입은 노파”(155쪽)를 공격하고는 “가젤처럼 민첩하게 길 끝으로 뛰어”(156쪽)간다.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어둠 속에서만 움직일 거라고 믿어왔던 좀비들은 조지 로메로의 예상과 다르게 “새하얀 햇빛 속에서 2층 베란다”(165쪽) 난간을 아주 손쉽게 기어오른다. 좀비 영화의

17)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55-156쪽.

거장이라고 불리는 조지 로메르조차 예상할 수 없던 좀비들의 행동은 그들의 행로를 미리 짐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언제 어디에서 좀비가 나타날지 모르며, 그 좀비가 어느 순간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알 수 없음'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한편, 좀비의 공격성은 주체의 욕망과 관련해서도 공포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좀비들의 행동이 욕망이 아닌 철저히 본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부재하기에 애초에 충족이 불가능하며, 해소되지 않는 욕구로 인해 공격은 멈추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탐식(貪食)뿐이다. 또한, 스스로의 욕망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좀비는 무지(無知)의 대상이자 무지(無智)한 존재로 규정된다. 이러한 '무지(無知/無智)'는 그 자체로 강력한 폭력성을 내포한다. 그리고 폭력의 가학성은 위의 인용문에서 좀비 소년에게 공격당한 노파가 떨어 뜨린,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빵 조각을 통해 극대화된다.

무엇보다 죽음은 멈추지 않고 새로운 죽음을 향해 달려 나간다. 이러한 좀비의 '무지'는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사유의 무능성'이란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 아렌트는 현대 사회의 '악'을 "생각하지 않음"에 있음을 밝히고, 사유를 멈췄을 때 우리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때의 사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타인'에 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부재인 것이다. 타인에 대한 사유가 부재할 때, 무비판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따라갈 때, 우리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논의에 따르면, 좀비는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의 화신이 된다.

윤이형은 '사유의 무능성'을 보여주는 좀비의 문제를 소설 속에서

1996년 3월에 발생한, 종로 근처의 어느 인쇄소 기계 뒤에서 쓰러져 죽은 남학생의 사건과 겹쳐놓는다. 이 사건은 소설의 핵심 인물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부여하고, 함께 '늑대 파랑'을 창조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때 소설 속에 제시된 '1996년 3월의 남학생'은 실제 1996년 3월에 벌어진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세상을 떠난 '노수석'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다. 종로 근처의 어느 인쇄소 기계 뒤에서 발견된 학생의 죽음, 그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때 과잉진압의 주체가 되는 경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렌트의 개념이 아닐까 한다. 지시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과 무비판적인 성실함이 아직 여물지 않은 학생의 죽음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주체성을 상실한 이들이 보여주는 폭력성은 힘없는 노파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좀비 소년과 겹쳐진다. 좀비가 주는 공포는 바로 이러한 '사유의 무능성'이 갖는 '악의 문제인 셈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나'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감염'의 공포가 다른 괴물이 갖지 못한 좀비만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좀비의 존재는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를 의미하고, 좀비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포는 자신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좀비의 공격은 대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좀비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좀비의 수는 강력한 악의 파급력을 가시화한다. 따라서 정세량의 소설 속 주인공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마지막 선택으로 '자살'을 결심한다. 이동신은 좀비가 등장하는 국내외 작품을 분석하며, 주인공이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이를 '감염의 윤리'라고 명명한 바 있다.¹⁸⁾ 좀비에 감염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윤리적

18) 이동신, 『좀비 반, 사람 반: 좀비서사의 한계와 감염의 윤리』, 『문학과영상』 제18권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정세량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에 앞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죽음이다.

이러한 선택은 윤이형의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소설 속 인물들은 늑대 파랑을 창조하며 “파랑은 우리를 지킨다. 우리는 파랑을 지킨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를 잃고 세상에 휩쓸려 더러워지면, 파랑이 달려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196쪽)라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르면 파랑이 자신의 부모들을 찾아서 길을 달리는 것은 좀비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더러워진 존재를 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파랑은 좀비로부터 위기에 빠진 부모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비가 되어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된다.

(가) 파랑은 총명한 늑대였다. 눈앞의 상황은 짐작과 달랐지만, 10년 전에 부모들에게서 받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불과 몇십 초 만에 기억해냈다. (중략) 하얀 뼈가 여기저기 드러나도록 참혹하게 찢긴 몸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는 어머니의 등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다가 파랑은 훌쩍 뛰어올랐다. 목을 물고 여러 번 흔들며 숨을 끊은 다음 머리카락 사이로 이빨을 박아 넣었다.¹⁹⁾

(나) 파랑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따라 달렸다. 왜 그를 쓰러뜨려야 하는지, 왜 자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었다. 파랑의 이빨은 몇 시간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서 아버지의 머리통은 아그작 하는 소리와 함께 쉽게 쪼개졌다.²⁰⁾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45쪽.

19)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66쪽.

20)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74쪽.

(다) 두 번째 어머니가 유리조각 더미 속에서 두 팔을 움직여 악어처럼 파닥파닥 기어나왔다. 어머니의 양쪽 다리는 무릎 바로 밑에서 잘리고 없었다. (중략) 어머니의 몸에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냄새가 났다. 파랑은 호흡을 멈추고 어머니의 머리통을 물어 몸에서 떼어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 사이에 끼어 있던 유리조각 몇 개가 어금니 사이에서 와그작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²¹⁾

위의 인용문들은 파랑이 찾아간 부모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집에서 생활하는 사라, 그녀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비슷한 주제의 원고를 쓰며 무려 여덟 개의 필명을 갖고 살아간다. 그녀의 수많은 이름은 그 자체로 사라의 쪼개진 주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광고 회사 직원인 재혁은 “자신을 비웃는 일의 위악적인 즐거움”(172쪽)에 빠져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고, 광고 제작을 위해 결과적으로 이주민 노동자의 어린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정희 역시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잡지 기자가 되지만, 이내 “음악잡지, 공연잡지, 여성잡지, 남성지, 주부지, 패션지, 교양지, 여행지, 레저지, 연예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신문”(181쪽)등을 거쳐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것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은 어쩌면 이미 좀비와 다름없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파랑은 좀비가 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쪼개고 부서뜨린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죽음은 일제히 “언젠가 우리가 우리를 잃고 세상에 휩쓸려 더러워지면, 파랑이 달려와 우리를 구해줄 것”(196쪽)이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인 셈이다. 이때 ‘잃어버린 우리’란 1996년 3월에 관한 기억을 공유한 이들로, ‘우리를 잃고 세상에 휩쓸린다’는 것은 분명한 상징성을 갖는다. 이에 살아남은

21)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187쪽.

마지막 어머니인 아영이 그동안 자신을 억압하던, 좀비가 되어버린 부모를 제거하고, 부모님의 뜻에 의해 헤어졌던 사랑하는 K를 향해 나아간다는 설정이 주목된다.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회복한 인물, 욕망을 깨닫고 이를 추구하는 인물인 까닭이다. 욕망이 부재한 가운데 욕구만이 남은 좀비로부터 살아남은 존재는 스스로의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뿐이다.

3. 인간과 좀비의 새로운 관계: 야금술사의 상상력

정세랑의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 속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좀비가 되었고, 3분의 1이 그날 살해당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한 줌이 될 때까지 도망 다녔다.”(233쪽)는 문장이 등장한다. 대부분의 좀비 서사는 좀비에게 공격을 당해 살해되거나 좀비가 되어버린 3분의 2의 인간들에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좀비 서사의 본령(本領)은 좀비가 되거나 살해당한 사람들이 아닌, “한 줌이 될 때까지 도망” 다니는 ‘3분의 1’의 인간들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좀비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투쟁이 아닌,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치열한 생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좀비를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알레고리나 묵시록적인 세계관을 드러내는 통로로 한정하기 보다는, 좀비와의 투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연대에 그 가치를 부여하는 논의들도 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들 역시 이러한 연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좀비로부터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연대를 넘어선, 인간과 좀비와의 연대에 관한 문제로 관점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중혁의 『좀비들』에는 안테나 감식반으로 일하는 채지훈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유일한 가족이었던 형마저 세상을 떠나고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던 그가 죽은 형이 남긴 LP판을 통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똥보 130, 고리오 마을에 사는 홍혜정이란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개별적인 존재들은 '스톤플라워'라는 하나의 음악을 통해 연대를 맺고, 좀비의 출현으로 고립된 마을을 찾아와 상대방의 생사를 확인할 만큼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이들의 조합이 결국 죽은 형의 LP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실마리가 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가능성은 좀비와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

김중혁 소설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주로 범죄를 저지르고 죽음에 이른 인물들로,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의해 군사 실험용 시체로 매매된 결과 생겨난 존재들이다. 이때 군대에 시신을 팔아넘긴 가족들은 고리오라는 마을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홍혜정 역시 마을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는 부대에서 시신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실험이 진행됨을 알게 되고, 좀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이 일에 전혀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이경무라는 인물이 함께 하게 되고, 중국엔 채지훈과 늘 엄마와의 갈등을 겪던 홍혜정의 딸 홍이안까지도 합류하게 된다. 이들의 연대는 '좀비'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다. 이에 여타의 좀비서사와 달리, 김중혁 소설에 나타난 좀비는 인간을 통해 포획되고 동시에 인간을 통해 구원을 얻는 독특한 정체성을 획득한다. 더불어 소설은 기존의 좀비 서사에서 보여주던 갈등 구조를 뒤집는다.

‘탕’ // 총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중략) 조명을 받고 있던 좀비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 머리통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머리통이 사라진 좀비는 팔을 바둥거리다가 파르르 떨어졌다. 인간이 죽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줄을 놓은 사람처럼 바닥으로 첩퍼덕 쓰러졌다. 곧이어 옆에 있던 좀비가 머리통을 맞았다. 이번에는 머리통이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고 오른쪽 눈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좀비는 쓰러지지 않았다. 다시 총알이 날아왔고 이번에는 정확히 머리통을 날렸다. (중략) 세 번째 좀비의 머리통은 더욱 잔인하게 부서졌다. 총에 맞는 순간 머리통이 가루로 변했다.²²⁾

위의 인용문은 좀비를 대상으로 실시된 ‘스마트 블릿’ 훈련의 한 장면이다. 스마트 블릿이란 한번 표적을 인식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내 버리는, 무선 신호로 움직이는 총알을 의미한다. 좀비로 다시 살아난 인물들은 스마트 블릿의 실험 대상이 되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탈출한 좀비들 역시 군부대를 통해 일사분란하게 포획된다. 기존의 좀비 서사가 주로 좀비에게 쫓기는 인간의 모습에 집중했다면, 김중혁 소설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역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역전은 이분법적 구도 속에 배치되지 않는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포획하는 자와 포획당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까닭이다. 이는 탈출에 성공시킨 좀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를 통해 발견된다.

“이 녀석들 전부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경무가 홍이안을 향해 말했다. 홍이안은 시큰둥한 얼굴로 이경무를 바라봤다.

“당연히 이름이 있겠죠. 한때는 사람이었으니까.”

22) 김중혁, 『좀비들』, 창비, 2010, 308-309쪽.

“사람일 때의 이름 말고 좀비로서의 이름도 있습니다.”

“좀비가 되고 나서 자기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건 아니죠. 홍혜정씨와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²³⁾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괴물 혹은 좀비로 ‘일반명사화’되었던, 동질화된 대상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환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좀비 사이에 존재하는 이분법적인 대립의 역전이 아닌, 인간과 좀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좀비가 주는 공포는 정체성의 상실과 연결된다는 서술을 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좀비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실한 정체성의 회복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때의 회복은 인간성의 회복, 인간으로의 환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좀비로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주로 좀비들의 생김새와 연결하여 명명(命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비들에게서 발견되는 신체적 특징을 주목하고, 그 부분을 홍혜정과 이경무가 좋아하는 고양이들의 이름과 연결 짓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부여된 일방적인 호명이며, 단순히 외형적 특징만으로 부여된 이름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좀비란 사유의 능력이 제거된, 그야말로 육체만이 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그 육체적 특징만으로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좀비로서 부여된 특징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의 명명,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이름을 따오는 행위에서 느껴지는 좀비에 대한 애정이 좀비들을 이전의 ‘괴물로서의 좀비’와는 변별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좀비라는 일반명사로 뭉뚱그려졌던 존재들을 개별

23) 김중혁, 『좀비들』, 창비, 2010, 229쪽.

적 존재들로 회복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인간과 좀비 사이의 단순한 관계 역전이 아닌, “좀비와 인간 사이의 존재”(218쪽)로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김중혁 소설이 갖는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야금술적인 성격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엘리아데는 “야금술사란 대지의 비밀,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비밀을 소통시키는 자”²⁴⁾ 라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때 ‘야금술’이란 주어진 재료를 다른 것과 섞고 변형함으로써, 소재로부터 물질성을 해방하고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중혁의 소설은 이러한 야금술적인 성격을 지닌다.²⁵⁾ 야금술사는 유목민의 전쟁기계와도 정주민의 국가 장치와도 구별되는 고유한 배치를 지닌다. 또한 유목민의 매희러운 공간과 국가 장치의 흠 패인 공간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고유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다. 이는 ‘구멍 뚫린 공간’으로, 야금술사들은 흠 패인 공간이든 매끈한 공간이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수많은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 김중혁은 이러한 야금술사처럼 서로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서 독특한 소

24) 이진경, 『노마디즘 2』, humanist, 2002, 447쪽.

25) 김중혁 소설이 갖는 새로움은 그의 소설이 창작이 아닌 발명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창작이란 ‘처음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예술작품을 독창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중혁은 “새로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또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가 그 수많은 밑그림 위에다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비닐광 시대(VINYL 狂 時代)〉)이라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비닐광 시대(VINYL 狂 時代)〉의 DJ는 서로 다른 음악에서 흘러 나오는 비트를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용지물 박물관〉의 주인공 역시 디자인을 위해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을 발명해낸다. 이는 발명은 베끼는 것이며, 이어붙이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의 소설 속 주인공 ‘발명가 이눅씨’의 말과 상통된다. 이에 김중혁의 소설은 창작이 아닌 발명이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야금술사를 ‘진정한 발명가’로 명명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중혁을 소설을 발명하는 ‘야금술사’로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통의 가능성을 발견해 나간다. 김중혁의 『좀비들』에 등장하는 인간과 좀비의 관계 역시 이러한 성격을 지닌다. 기존의 좀비 서사가 인간과 좀비 사이의 갈등이나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주체가 겪는 자기부정과 해체에 주목해왔다면, 김중혁의 소설은 그러한 이분법의 도식에 구멍을 뚫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좀비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의 관계는 매끄러운 공간이나 흠 패인 공간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위치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이에 구멍을 뚫으며 어느 방향으로나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이분화된 세계 속에서 하나의 윤리를 강요하고, 선택되지 않은 윤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세라의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에서도 주인공 정윤은 기존의 윤리적 잣대를 넘어서는 선택을 감행한다. 그녀는 옥탑방에서 내려다보이는 좀비들을 향해 매일 한 번의 활시위를 당긴다. 증오하는 대상이 아닌 사랑했던 사람들인 '존경했던 교양과 강사와 '자매 같았던 동기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껴둔 남은 화살로는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승훈의 머리를 깨뜨린다. "좋아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된 화살로 끝내준 것엔 후회가 없다." (237쪽)는 정윤의 고백은 일반적인 윤리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는 김중혁 소설에서 좀비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노력하던 홍혜정과 이경무를 향해 좀비들에게 자유가 가능하냐고 묻던 주인공의 질문과도 연결된다. 이경무는 중요한 것은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주인공은 스마트 블릿을 통해 "착한 사람은 살아남고, 나쁜 사람은 죽" (310쪽)게 될 거라는 장장군의 주장에 대해, 과연 "착하고 나쁜 기준이 뭔데요?" (310쪽) 라는 질문을 던진다. 지배 집단이 제시한 윤리의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고, 나아가 과연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도식화된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을 가한다. 이에 김중혁은 좀비를 통해 삶과 죽음으로 이분화되지 않는, 그 경계에 대한 사유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주제 의식은 소설의 결말에서 좀비가 되어버린 똥보 130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똥보 130과 좀비 무리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똥보 130이 나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이 몸을 휩 돌렸다. 두 팔을 앞으로 내밀며 나를 향해 걸어왔다. 다섯 명 정도의 좀비도 똥보 130을 따라 걸어왔다. 똥보 130은 웃고 있었다. 웃으면서 내게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멈칫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두 팔을 벌리고 걸어오는 똥보 130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겉모습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지만 사람이 아니었다.²⁶⁾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똥보 130은 좀비가 되어버렸지만, 채지훈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 따라오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374쪽)라고 외치며, 수많은 좀비들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지훈은 형의 죽음 이후, 형이 남겨준 LP판을 듣기 위해 자동차 트렁크에 설치한 ‘허그 쇼크(Hug Shock)’를 작동시킨다. 허그 쇼크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트렁크 속의 모든 씨시스템이 충격을 흡수”(12쪽)해 버리는 장치를 말한다. 충격을 온 몸으로 끌어안는 기계로, 허그 쇼크를 판매하는 사람은 충격이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훈은 허그 쇼크를 통해 스톤 플라워의 두 번째 앨범을 얻는다. 시끄러운 음악에 반응하는 좀비들을 이끌고 함께 가기 위해, 허그 쇼크를 켜고 도로를 향해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이다. 이때 허그 쇼크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

26) 김중혁, 『좀비들』, 창비, 2010, 369-370쪽.

주 작은 충격이 커다란 폭발을 동반할 수 있지만 엄청난 충격이 깃털만큼 가벼워질 수 있”(12쪽)다는 점에서, 좀비와 함께 하는 삶 또한 이전과 크게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중혁의 소설은 기존의 좀비물에서 보여주던 서사적 관습을 빗겨간다. 일반화된 ‘좀비’가 아닌, 소설의 제목처럼 수많은 균열을 지닌 ‘좀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현대소설과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

리처드 커니는 ‘괴물’이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아”를 마주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²⁷⁾ 이에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괴물은 단순히 외부에서 유입된 두려운 타자가 아닌, 내가 구원하지 못한 내 안의 다른 ‘나’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2021년 현재, 오늘날 우리는 좀비라는 이름의 괴물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좀비를 통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내밀한 욕망과 근원적인 두려움을 발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좀비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내에서 해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 사유되고 있는가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오늘날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좀비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고 본다.

좀비 서사란 단순히 좀비가 등장하는 작품이 아닌, 좀비가 갈등의 주된 축을 제공하는 서사를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주된 갈등은 인간과 좀비 사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현대소설에서 좀

27)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옮김, 개마고원, 2016, 13쪽.

비가 주된 갈등의 축을 제공하는 작품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해당 서사가 갖는 고유한 특징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소설 분야에서는 다른 장르에 비해 좀비에 대한 서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었던 대중문화 속의 좀비는 소설 속에서 인물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분위기' 혹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상황을 통해 가시화된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더 이상 좀비가 재난을 형상화하기 위한 은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 소설 안에서 좀비가 직접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내에서 좀비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2장에서는 좀비가 주는 공포를 '알 수 없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좀비라는 존재에 관한 '무지(無知)'가 주는 공포를 살펴보고, 좀비 자체가 갖는 사유의 무능성을 '무지(無智)'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진 인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로 작용한다. 바로 이 '알 수 없음'이 좀비의 등장이 갖는 근원적인 공포인 셈이다. 또한 좀비들은 욕망이 거세된 채 본능적인 욕구만을 지닌,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어느 순간 '나' 자신도 '좀비가 될 수 있다는 '감염'의 공포 역시 주체의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보았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좀비와 인간 사이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새로운 좀비 서사의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작품 속에서 좀비로부터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연대를 넘어선, 인간과 좀비와의 연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중혁의 장편소설 『좀비들』을 통해 기존의 좀비 서사에서 보여주던 갈등 구조가 역전되고 있음에 집중하였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포획하는 자와 포획당하는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의 등장을 발견한 까닭이다. 그리

고 이를 서로 이질적인 타자들 사이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서 독특한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 야금술적인 특징으로 규명하였다. 기존의 좀비 서사는 인간과 좀비 사이의 갈등이나 살아남은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주체가 겪는 자기부정과 해체에 주목해온 경향이 강하다. 무차별적인 좀비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주인공, 혹은 좀비에게 감염된 이후 타인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인공들의 결말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윤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다. 그러나 김중혁의 소설은 이러한 논리를 비껴간다. 어떤 식으로든 구분되는 좀비와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이분법적 도식에 구멍을 뚫고 있는 까닭이다. 이를 위해 인간과 좀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좀비가 공존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들은 더 이상 이분화된 세계 속에서 하나의 윤리를 강요받거나, 선택되지 않은 윤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다. 이는 현대인의 도식화된 이분법적 사고에 균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서 폭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좀비 서사'가 한국의 현대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현대 소설에서 좀처럼 등장하지 않던 '좀비'의 존재를 탐구함으로써, '좀비'에 관한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영상물 위주로 진행되어온 '좀비 서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중혁, 『зом비들』, 창비, 2010.
듀 나, 〈너네 아빠 어딴니?〉, 『용의 이』, 북스피어, 2007.
윤이형, 〈큰 늑대 파랑〉, 『큰 늑대 파랑』, 창비, 2011.
정세랑, 〈메달리스트의 좀비시대〉, 『목소리를 드릴게요』, 아작, 2020.

2. 논문과 단행본

- 권혜경, 『좀비, 서구 문화의 전복적 자기반영성』, 『문학과 영상』 제10권 3호, 문학과 영상학회, 2009, 535-561쪽.
김성범, 『21세기 왜 다시 좀비 영화인가?』, 『씨네포럼』 제18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2014, 127-160쪽.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옮김, 개마고원, 2016.
박하림, 『파국의 기원과 멜랑콜리, 2000년대 한국 문화에 나타난 준비 서사 연구』, 『비교문학』 제71호, 한국비교문학회, 2017, 5-39쪽.
복도훈, 『세계의 끝: 최근 한국소설에 나타난 재난의 상상력과 이데올로기적 증상』, 『인문학연구』 42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7-42쪽.
서동수, 『좀비, 엑스 니힐로의 주체와 감염의 윤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9, 181-209쪽.
성신형, 『한국적 좀비사회 내러티브 분석과 기독교사회윤리적 접근』, 『한국기독교 문화연구』 제13집,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20, 33-51쪽.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19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3, 185-223쪽.
이동신, 『좀비 자유주의: 좀비를 통해 자유주의 되살리기』, 『미국학논집』 제46권 1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14, 119-145쪽.
_____, 『좀비 반, 사람 반: 좀비서사의 한계와 감염의 윤리』, 『문학과영상』 제18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7, 33-51쪽.
이진경, 『노마디즘 2』, humanist, 2002.
질 들뢰즈,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3.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옮김, 한길사, 2006.

3. 기타자료

- 〈얼굴 없는 SF작가 '듀나'와 e메일 교신〉, 『중앙일보』, 2006.1.16., 제27면.

Abstract

A Study on the 'Zombie Narrative' in Modern Korean Novels

Kim, So-Ryun(Ewha Womans University)

The content that is actively consumed in popular culture today is definitely the 'Zombie Narrative'. 'Zombie' is soon positioned as a unique character that reveals the times in which we live in conjunction with the uniqueness of Korean society. Zombies, however, are rarely narrated in traditional Korean modern novels though science-fiction novels constructively deal with them. This paper focuses on the existence of 'zombie', which seldom appears in modern novels. The paper also aims to illuminate the literary value of the 'zombie narrative' that is explosively consumed in modern society.

In the main part, I talk about the horrors of 'ignorance' appearing in the existence of zombies in relation to those of the problem concerning "unknown". As one of the crucial characteristics of the zombies, moreover, the "absence" of the "thinking" was considered in terms of "ignorance"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Banality of evil" raised by Hannah Arendt.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a new solidarity between zombies and humans depicted in novels.

This possibility can be seen as a search for solidarity between humans and zombies, beyond the solidarity between humans who survived from zombies. The paper enlightens a new relationship between a captor and a captive that dichotomous scale impossibly explains and presents a possible new story.

As discussed above, as this study searches for the existence of 'zombies' that seldom appear in contemporary Korean novels, it clearly signifies the literary value of 'zombies' and further possible narratives concerning 'zombies'. Furthermore, this study appreciates the extension of the existing 'zombie narrative' researches, which has been mainly focused on films.

(Keywords: Zombie, Narrative, Hannah Arendt, Thoughtlessness, Banality of evil, Solidarity, Metallurgy, dichotomy, Joonghyeok Kim, Yihyung Yoon, Serang Chung)

104 대중서사연구 제27권 2호

논문투고일 : 2021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4일